

☞ 한·미 FTA 협상으로 거대 美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을 제고

- *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6,2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중앙정부(28조원)의 약 22배임.
- 특히 미국이 조달시장 입찰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**자국내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시킴**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개선
- 또한, 중앙정부의 상품·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13만 SDR에서 7만 SDR수준(우리측 1억원, 미측 10만 달러)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**미국 연방조달 시장의 개방폭이 확대**
 - 이번 양허하한선 인하로 추가 개방되는 시장규모는 **우리가 5천억원, 미국이 6조원**에 이를 것으로 추정
- **정부조달 작업반(Working Group) 설치**를 통해 양국 조달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☞ 이 밖에도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 인정

-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우리의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지역중소 건설업자 등 **중소기업 보호가 가능**
- 또한,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**학교급식 분야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예외조항 신설**

*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WTO(GATT 및 GPA)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(2005.9) 이후,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를 위해서 이를 WTO상 예외로 인정할 필요성 제기

- 이에 따라 향후 WTO GPA(정부조달협정) 개정협상에서도 '학교급식 예외 인정'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짐.



